

소비심리 공포 ... 할인에 할인해도 지갑 안 연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 '폭탄세일' 매출 미미 미끼상품·저가 상품에만 고객 몰려 '울상'

지난 20일 오후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이벤트를. 세일기간 열린 아웃도어 특가 상품전과 수영복 시즌 행사에 고객들이 붐볐다. 백화점이 긴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도, 원가 대비 최대 50~80% 싼 물품들이 나오다 보니 매장에는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매장 판매원의 분위기는 좀 달랐다. 많은 고객이 행사장을 찾았지만, 고객이 몰린 곳은 1~3만원대의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코너였다.

상반기 암울했던 터널을 통과한 대형유통업체들이 폭탄세일에 각종 할인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른바 '턱걸이 매출'이라도 올리기 위한 행보지만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냉랭해진 가운데 돈을 쓰더라도 싼 것만 찾는 '불황형 소비' 패턴에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광주신세계 등 지역 대형유통업체의 6·7월 매출은 세일기간임에도 소폭 신장하거나 역신장했다. 백화점의 정기세일 중간점검 결과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대비 1.1% 신장하는데 그쳤으며,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0% 올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 역시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에어컨 온도를 낮추고 각종 경비를 줄이고 있는 대형마트는 '세일만이 돌파구'라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닫힌 소비자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 3~9일 삼겹살·계란·우

유 등 1000여가지 상품을 최대 50% 싸게 판매한 데 이어 17일부터 바캉스 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이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3% 줄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 3~16일까지 3000여가지 상품을 최대 50% 싸게 판매했지만, 이달 들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눈으로 보고 바로 집어 살 수 있는 집화 코너에는 고객들이 많이 몰렸지만, 입어보거나 사이즈를 확인해야 하는 의류 코너에는 고객이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나마 지갑을 여는 소비자도 씹씹이가 작아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더라도 할인폭이 큰 상품만 살뿐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고 처리를 위해 80~90%씩 싸게 내놓은 미끼상품만 담아 가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마트 입

장에서는 집객을 위해 미끼상품을 내거는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 먹이사슬 구조상 편의점 다음으로 큰 슈퍼마켓도 연일 할인가를 외치지 않으면 고객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며 "가격이 공유되면서 몸집이 크든 작든 시장 내 참여자들은 무한경쟁 상태에 놓여 있어 '할인에 할인' 구도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빠와 함께 모터스포츠 체험

금호타이어는 지난 20일 '엑스타 슈퍼챌린지 제3전'이 열린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신나는 모터스포츠 체험' 행사를 열고, 광주·곡성공장 직원 및 가족을 초청, 서킷 체험 행사를 가졌다. 초청된 직원 및 가족들이 레이싱 모넬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연매출 1000억 벤처 454개 ... 역대 최대

전년보다 9.1%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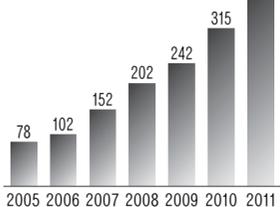
광주·전남은 12곳

1조 넘는 벤처도 8개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전국적으로 450여 곳에 이르지만 광주·전남에서는 12곳만 '100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0억 클럽'에 가입한 벤처기업 수는 454개로 전년 대비 38개(9.1%) 증가했다. 1000억 클럽 벤처는 2004년 말 현재 68개이던 것이 10년 만에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 연매출 1000억 벤처 (단위: 개)



454개의 평균 업력은 21.7년이고 창업 후 매출 1000억을 돌파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16.8년으로 전년 17년보다 소폭 단축됐다. 업종별 1000억 돌파 기간은 통신·방송기기는 10.8년, 소프트웨어개발은

11.3년인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은 20.3년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벤처성장세가 눈에 띄지만 광주·전남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나머지 대형 벤처도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000억 클럽에 가입한 광주지역 벤처는 전동기·발전기제조업체인 뉴모텍(1566억원)과 주형·금형 제조업체인 세화아이엠씨(1414억원), 철강 절단가공 및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웅에스엔티 등 6곳이다.

또 전남은 석유화학 정제처리업체인 재원산업(1818억원)과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체인 유한기술(1413억원),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체인 케이씨(1308억원) 등 6곳이 매출 1000억원을

넘겼다.

전북을 포함하더라도 15개에 불과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60개의 17분의 1 수준이다.

경남권 70개, 충청권 65개, 경북권 28개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여서 '수퍼 벤처 불모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00억 벤처기업 중 3년 연속 매출 성장률 20% 이상인 '슈퍼 가젤형기업'(Super Gazelles Company)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광주·전남 중기청 관계자는 "1000억 벤처는 독자적으로 생겨나 자생적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면에서 지역경제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지역 슈퍼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성장기반 조성과 함께 기업들 스스로 신사업 개발과 R&D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018.50 (-0.92)

금리 2.52%

코스닥 561.75 (+1.49)

환율 1026.80원 (-2.70)

광운, 해외직구 특화 'K-글로벌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해외 직구 구매 및 해외 이용 시 혜택이 가득한 'K-글로벌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K-글로벌카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등 해외에서 직접 사용한 금액의 5%를 포인트로 돌려주며, 광주은행에서 외화를 환전하면 최대 70%의 환율우대 혜택을 준다. 이 카드는 또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BC카드사의 '오! 포인트' 제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및 각 영업점 창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K-글로벌카드' 출시를 기념, 오는 10월 말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 기간 동안 K-글로벌카드로 국내 면세점에서 1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며, 국내 모든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10만원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용 가방을 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의 중견 광산업 업체인 프로맥엘이디가 광주 첨단2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면조명 대량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사진은 다음달 완공되는 새 공장. <프로맥엘이디 제공>

'프로맥엘이디' 첨단에 대량 생산라인 구축

고효율 면조명 신제품 생산

혁신도시 이전 KDN 납품

광주지역 중견 광(光)산업 업체인 (주)프로맥엘이디가 최고 광효율의 실내 면조명 대량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이 제품은 성능을 인정받아 광주·전남 동력"이라며 "지역 슈퍼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성장기반 조성과 함께 기업들 스스로 신사업 개발과 R&D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시중 제품 대비 45%가량의 생산원가 절감에도 성공했다. 실제 이 제품은 광효율이 110 루멘(밝기)에 달해 KS기준인 75루멘, 고효율 기준인 80루멘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프로맥엘이디는 광주 첨단 제2산업단지에서 3만3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라인을 대규모로 증설, 8월 개이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새 공장이 가동되면 9월부터는 하루 2000대(월 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선태 대표이사는 "신제품 개발과 신공장 건축이전을 기회로 삼아 LED 조명 전 제품의 시장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LG전자와 동부LED 등 국내 대기업과 LED 업계의 상생발전을 주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옥상·외벽·내벽·주춧돌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지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